

예수 그리스도

210. 대립되는 그리스도의 상반된 모습.

야이로와 가나안 여인에게 보이셨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행동의 신비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부드럽고도 강하신 분입니다. 양보하시고 저항하시는 분, 드러내 보이시고 숨으시는 분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유유히 빠져나가시며, 골고타로 끌려가도록 선뜻 나서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유한 분이시며, 모든 것을 포기하신 가난한 분입니다.

온갖 상반되는 모습과 갖가지 보화를 한 몸에 지니신 충만한 존재이십니다. 고난 받는 야훼의 종이시며 전능하신 야훼이십니다.

211.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신비스러운 예수님의 거룩한 눈, 당신을 바라보는 이들을 비추시고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눈.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는 하느님 안에 고정된 무한히 깨끗하신 예수님의 눈.

그 눈길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겠지만 이 눈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무적의 힘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212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사물들은 전과는 너무도 다른 색조를 띄게 됩니다. 그분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 누가 감히 하느님의 고동 소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부수어 당신 천주성의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기에 우리 스스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용기를 내어 그분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3.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우정을 나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절친한 벗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포부와 쇄신, 새로운 열정, 사랑에의 갈구, 기쁨을 송두리째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분께서 그대 영혼의 영혼, 그대의 모든 것을 항상 털어놓을 수 있는 은밀한 벗, 그대의 힘, 그대의 사막을 축축히 적셔주는 생명수가 쿵쿵 솟아 오르는 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대의 사막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분의 신비 속에 잠겨 있으며 그분의 숨결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214. 당신에게 다가가는 누구나 예수님을 감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처럼 되십시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함, 미소, 행동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 분께서는 지상의 다른 어떤 친구도 제공할 수 없는 가능성, 바로 예수님이 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15. 계시 안에 예수님의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들을 찾아내십시오.

그 계시의 깊숙이 숨겨진 구석구석에 그분의 생명이 박동하고 그 박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신비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216.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 있습니다.

21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함께 엮어 가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비추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에 빠져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무한하신 그분의 풍요로움으로 살아가십시오.

218.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선과 사랑과 자비를 예수님 안에 맡겨 두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비들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천주성의 보고이며 그 안에서 그대가 찾는 모든 것, 그대 영혼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을 만나게 됩니다.

219. 예수님은 저 멀리 베들레헴에, 나자렛에, 갈바리오에 남아 계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들의 감실 안에만 현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 생활 안에, 우리 일상생활 안에, 우리 숨결 안에 살아 계십니다.

220. 예수님... 저를 꼭 잡아 주십시오. 걸핏하면 당신 사랑의 신비스런 요구들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한결 같지 못한 불쌍한 저를 보시지 않습니까?

당신 사랑의 열기와 당신 마음의 모험을 발견할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주십시오.

221. 예수님, 제 작고도 가난한 집이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 가난

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라도 당신께서 들어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당신 현존으로 그 집을 가득 채워주지 않으시렵니까? 들어 오세요 예수님, 그리고 편히 쉬세요.

222.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이 그대를 휩싸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대 안에 온 세상을 담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바라보십시오. 그대의 삶이 신성하고 우주적인 색조를 띠게 될 것입니다.

223.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증거자시요 성실하신 분... 영원한 약속의 완성자이신 그분께서 그대의 영혼에 충만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오, 복된 기다림이여!

224.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취하시어 영혼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사물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모르게 될 정도로 하느님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대의 테마가 되고, 그대의 소유, 그대의 보물, 그대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 존재의 심부까지 점령하시어 그분이 아닌 것은 아무 것도 그대 안에 남아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생각, 기쁨, 갈망, 무한한 열정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내 스타일, 내 방법대로가 아닌 그분의 스타일,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225.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영혼이 당

신을 찾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과 만나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삶은 타오르는 그분의 불꽃의 열기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226. 그리스도는 상반되는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진 존재입니다.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놀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분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 삶의 대부분이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명령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전능한 사업을 펼치지도 않으시며 단지 순명하십니다. 한 가정의 평범한 아들에 지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당혹스럽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으시고, 자신이나 부모님들의 신분을 높이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정복하기 위해 애를 쓰지도 않으십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인 모습과 행동양식들을 모두 한 몸에 지닌 존재를 만나는 데 우리 인간은 익숙하여 있지 않습니다.

227.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말 살아 있는 것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분의 현존을 믿고, 사랑 안에 더욱 섬세해지십시오. 부재는 오직 강한 사랑으로만 없어집니다.

228. 만일 그대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그대에게 다가가는 모든

이가 그대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예수님 본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상을 일그러뜨리지 마십시오. 그대의 성실함의 유리를 통해 그분을 보고 그분의 모습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보게 해 주십시오!

229.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대가 안고 있는 근심들 곁에, 그대가 걱정하는 문제들 한 가운데에, 그대의 수고와 일, 불안과 갈등 가까이에 그분이 계십니다.

성덕을 향한 그대의 갈망을 인도하시고 평화의 땅으로 데려가 주시며 영성생활에 진보할 수 있도록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그대를 도와주시고 그대 마음 안에 새로운 갈망을 일으키시며 하루하루 그대의 이상을 새롭게 하시고 순간순간 새롭고도 신비로운 길을 표시해 주십니다.

그대 삶의 나침반을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시며 열핏 보기에 그대 인생의 여정을 시시각각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230. 주님, 주님께서 저를 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께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저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당신에게서 도망치지 못하게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가끔 도망치고 마니까요.

231. 그리스도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저의 모든 삶, 다시 말해서 저의 모든 행동과 존재 전체, 생각과 호흡 전부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제가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더 제 자신의 것인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야 말로 저의 유일한 소유, 제 영혼의 영혼, 제 생명의 생명이요 제 존재의 뿌리이자 바탕이십니다.

그분이 제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고 하느님화 시킵니다. 그리스도는 힘이요 기쁨, 행복이요 사랑, 그리고 충만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희망. 제가 소유한 모든 것입니다.

232.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서 가장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분 존재의 역사적인 진실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동조자들 그리고 반대자들 모두가 그분께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비평을 통해 그분을 역사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 역사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실제적인 존재는 다시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신비이지 그분의 실제적인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33. 그대의 눈과 입술과 몸짓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예수님과 똑 같은 온유와 그분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

아! 어린 양의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234. 예수님께서서 그대 안에서 승리를 거두셔야 합니다. 그분 수난의 열정이 그대의 인간적인 열정들 위에 승리를 거두셔야 합니다.

그 크신 열정, 그 위대한 사랑의 열정이 그대 자애심에서 나오는
자랄한 열정들 위에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열정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랄한 열정들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좀
먹고 우리 존재의 가장 숭고한 부분까지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립
니다.

235.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립습니다. 만일 그대가 우리에게
그분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236. 그대를 볼 때 그분을 뵈게 되기를! 필립보를 찾아갔던 그리
스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하렵니다. "예수님을 뵈고 싶습니다."

그대의 시선에서, 그대의 미소에서, 그대의 언행에서 그분을 뵈
고 싶습니다. 아니, 그대 삶 전체에서 그분을 뵈고 싶습니다.

237. 오, 예수님! 저는 행운아입니다.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시고 수
천 번도 더 보아주시고 결코 제게 싫증을 내지 않으시는 당신께서
저의 의사이시니 저는 행운아 중의 행운아입니다.

제 몸에 가득한 상처와 싸맨 자국들은 당신의 자비를 더욱 돋보
이게 합니다. 예수님, 저는 참말로 운 좋은 아이입니다.!

238. 참으로 심오하고 대조적인 그리스도 영혼의 풍요로움이여!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 안에는 아버지 외에 다른 것
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분을 보고 성부께 대한 편집증환자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

니다. 그분 입술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떨어질 날이 없으며 오직 아버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분께서 하신 첫마디 말씀도 마지막 말씀도 모두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구원하신 이들, 당신의 형제들, 당신의 벗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넘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간다. 그러나 기어 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 멍에는 가벼우니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이분 보다 충실한 벗은 더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차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239. 예수님, 자꾸만 당신을 바라보는 그 힘이 저를 예수님으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신 착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그분을 차디찬 나무 위에 매달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는 모든 이를 위한 메시지와 불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40. 예수님, 저의 삶 안에서 당신을 본받기 위해 기도 안에서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 사랑의 큰 바다 속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어 당신과 하나되게 하소서.

241. 자매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매들 안에 숨어 계시며 그대를 살그머니 바라보고 지켜 보시며 그대의 행동거지들을 유심히 살펴 보십니다.

더 이상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마십시오.

242. 예수님, 당신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께서 무엇을 주시고 거두시는지 보기 위해 결눈질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시간도, 시선도, 마음도 없습니다.

243. 생의 모든 순간에 그대는 항상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244.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철저히 그분으로 만들어 주시어 그대를 보는 사람 모두가 그분의 현존과 부딪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대는 살아 있는 그분의 현존 안으로 사라지십시오.

245. 참으로 다정하시고 동시에 무엇에도 매어있지 않으신 그분 내심의 느낌들은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그 무엇에도 매어 있지 않으십니다: 성 요셉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으시고 어머니께 대해서는 단지 몇 마디 말씀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람들 곁을 무심코 지나시는 것같이 보이십니다.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면 "다른 곳에도 가야 한다."하시며 거부하시고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 자리를 피해 숨어버리십니다. "그냥 놔두어라."하실 때는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참으로 다정하십니다:"오늘은 너의 집에서 음식을 들겠다."하시며 자청하시고 엠마오, 베타니아, 가나에서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하시며 제자들을 방어하시고 "그를 귀찮게 하지 마라"하시며 동정하십니다. 그분처럼 사랑하고 쉽게

감격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246. 아기가 되어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결국 빵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247. 언제나 사랑에 찬 시선과 몸짓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대의 말은 복음의 맛을 지니고 참된 행복의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그리스도의 선함과 온유함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248. 그분은 불, 활활 타오르는 불입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장엄하게 타오릅니다. 그분이 당신의 빛입니다... 누군가 이 빛 속에 휩싸이게 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가지, 그분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자석의 힘에 끌려 가듯 결코 저항할 수 없는 그분,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승리자이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249. 베들레헴의 아기 앞에서 권리는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게 됩니다.

250. 결국 저는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이 앞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251. 예수 그리스도는 정열적인 분이시고, 정열을 불러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깊고 심오한 영역으로 영혼을 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감싸주십니다. 창세기에서 요한 묵시록에 이르는 성서 전체를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성서 전반에 걸쳐 그리고 그 한 구절 구절마다 미래의 희망으로, 완성된 현실로 예수님의 인격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252. 성부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겨 두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삼위일체 신비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신비를 당신 안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천주성의 보고이십니다.

그대가 찾고 있는 모든 것, 그대 영혼이 찾는 그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